

언어-문학영재의 시적 언어능력 활성화 방안

장창영(전북대)*

〈목 차〉

- | | |
|------------------------|-----------------------|
| 1. 시적 언어능력의 의미와 가치 | 4. 정서 안정과 거시적인 대응력 확보 |
| 2. 발상 전환과 상황별 어휘 대응 훈련 | 5. 시적 언어능력 활성화의 기대 지평 |
| 3. 표현력 확장과 내적 의미 심화 | |

1. 시적 언어능력의 의미와 가치

이 연구의 목적은 언어-문학영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적 언어능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단계별 학습 방안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문학영재는 영재 가운데서 언어와 관련하여 능력의 특수성을 인정받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인물을 지칭한다. 우리가 언어로 어떤 일을 잘한다는 것은 말로 하거나 글로 하거나 언어적 파악과 논리화 그리고 형상화와 소통의 탁월하다는 의미가 있다.¹⁾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508].

1) 우한용,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 탐구』, 한우리, 2010, 32면.

언어-문학영재 중에는 서사 능력이나 시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때로는 상황을 극화하는 능력이 탁월한 예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가 서사 능력이나 시적 능력, 극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작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인 언어-문학영재를 미래의 시인이나 소설가와 동일시하는 이면에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년시절 보였던 탁월한 언어능력이 성인 이후에도 지속해서 나타나는지 여부이다. 즉, 유년시절의 남보다 출중했던 언어능력이 성장 과정에서 소멸하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설가와 서사 능력, 시인과 시적 능력, 극작가와 극적 능력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관성은 존재하나 필연성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단순한 취미나 관심 차원의 글쓰기와 전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글쓰기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뛰어난 언어구사능력이 선천적인 요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언어-문학영재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유년시절 뛰어난 언어능력을 보였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권 하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조로하거나 소멸할 가능성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언어 사용은 학습자들의 지적능력 확보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의 인성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학습자가 지적능력과 학습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내용 이해나 표현영역에까지 우수한 자질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량평가에서 나타나는 지적능력이나 학습능력이 언어-문학영재들이 보유한 글쓰기 재능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²⁾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언어-문학영재가 보유한 시적 언어능력은 영재 일반에서 나타나는 우수한 학업 성취도나 풍부한 지적 정보 취득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언어영역이나 국어능력은 학습의 국면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문화의 이

2) 예술 천재들은 명시적 차원에서 지적 능력의 기준으로부터 판단할 때, 결코 영재의 범주에 소속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 범주의 영재성이 새롭게 발견되고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재평가될수록 영재성의 정상적인 지능 요인에 대한 집착과 고집은 일종의 자가당착의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서상문, 『영재교육을 위한 LACAN 정신분석학적 토대 탐색』, 『교육철학』 제44집(2011), 한국교육철학회, 125면 참조)

해와 창출에도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³⁾ 수많은 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언어구사능력은 학습자의 사고능력과 정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영역에 해당한다. 어휘를 선택하고, 이를 문장화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질이나 성향 외에도 다중적인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언어영재에 대한 논의는 개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언어영재를 다룬 주된 논의로는 언어 영재성에 대한 개념, 판별 도구, 외국 사례 분석, 교수-학습원리, 구성원리 등이 있다.⁴⁾ 이 외에 장르별 언어영재를 다룬 논의로는 창의적 작문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다룬 박수자⁵⁾, 내러티브 영재의 개념과 판별을 다룬 임경순⁶⁾, 언어-문학영재의 시적 언어능력을 다룬 장창영⁷⁾, 극 영재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정진석⁸⁾, 논술영재의 개념과 구성요인을 다룬 김유선⁹⁾ 등이 있다. 하지만 언어-문학영재와 개별 장르의 상관에 대

-
- 3) 서혁은 국어 능력을 국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규정하면서, 국어에 대한 지식, 세상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한 내용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시적 언어능력 활성화 방안은 이해보다는 표현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서혁,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 탐구』, 한우리, 2010, 107면)
- 4) 박경숙·오영주, 『언어 영재 판별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1997.
 이순영, 『언어 영재의 개념과 언어 영재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Vol.6 No. 한국독서학회, 2001.
 이의란, 『언어 영재 판별 도구 개발 연구』, 서울교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3.
 권순희, 『국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한국초등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6.
 _____, 『언어-문학영재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외국사례 비교』, 『국어교육』 128호, 한국어교육학회, 2009.
 최지현 외, 『언어 영재성 판별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1)』, 『국어교육』 121호, 한국어교육학회, 2006.
 _____, 『언어-문학영재성에 대한 정량적 판별 근거』,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 탐구』, 한우리, 2010.
 진선희, 『언어-문학영재의 교수-학습 원리 탐색』,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 탐구』, 한우리, 2010.
 최인자, 『언어영재 교수 학습 방법』, 『언어과학연구』 8, 신라대 교육과학연구소, 2002.
 _____, 『언어-문학영재 교육 과정의 구성원리』,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 탐구』, 한우리, 2010.
- 5) 박수자, 최인자, 김정섭, 강승희, 공명철, 한상한, 『언어 영재를 위한 창의적 작문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수-학습 개선 및 자료 개발, Vol.2 No.1, 2005.
- 6) 임경순,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 탐구』, 한우리, 2010.
- 7) 장창영, 『언어-문학영재와 시적 언어능력』, 『한국언어문학』 68집, 2009.
- 8) 정진석,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 탐구』, 한우리, 2010.

한 논의는 아직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언어-문학영재의 시적 언어능력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시적 언어능력은 “탁월한 언어감각을 바탕으로 남다른 감수성과 직관력을 발휘하여 독특한 상상력을 창의력과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미적 세계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¹⁰⁾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본격적인 언어-문학영재의 능력 개발 논의에 앞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언어-문학영재가 보유한 언어 학습능력과 창작능력의 상관성 여부이다. 시에 근거를 둔 시적 언어능력은 어휘력, 상상력, 창의력, 감수성과 직관력, 형상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언어-문학영재들의 비범한 언어능력을 구체화하고 발산시키는 데 유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적 언어능력은 일반 개념의 창작능력과 일정한 유사성을 지니지만 서사를 포함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등으로까지 응용과 확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수학이나 과학, 영어, 예체능 영재와 달리 언어-문학영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선발 및 교육과정의 불투명성과 결과의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데서 기인한다. 단기간에 비교적 뚜렷한 성과 도출이 가능한 다른 교과와 달리 언어-문학영역은 그 성과 확인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며 성공 여부 또한 불확실하다.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본다면 영재성을 판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언어-문학영재들의 능력 발현 또한 우연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¹¹⁾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에도 시적 언어능력은 언어-문학영재들의 정서를 충만하게 하고 감수성을 고양하며, 풍부한 표현력을 발휘하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적 언어능력은 일상

9) 김유선, 「논술영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5호, 한국청소년학회, 2010.

10) 장창영, 위의 논문, 312면.

11) 소설가 신경숙은 자신이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창작 계기로 교사가 내준 반성문 숙제에서 찾고 있다. 『시간의 주름』으로 미국 아동문학 최고 영예인 뉴베리상을 수상한 동화작가 매들렌 랭글(1918~2007)은 『세상을 쓰는 아이들』에서 뉴욕 제일의 명문 여학교에 다녔던 2년 동안 입은 상처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처럼 유년 또는 청소년 시절에 교사의 적절한 언급과 방향 지도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작가를 만들도록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생활에서 실시간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하며, 실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한다면 삶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시적 언어능력은 언어-문학영재의 선천적인 자질이나 능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논자들은 언어-문학영재의 시적 언어능력을 시 쓰는 능력, 시 창작 능력과 동일시하는 예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각은 언어-문학영재들의 시적 언어능력을 ‘시’라는 특정 문학 장르에 한정시킴으로써 논의의 범주를 제한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단계의 훈련 과정을 적용하여 언어-문학영재들의 시적 언어능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어휘와 유연성 강화 훈련을 중심으로 발상 전환을 시도하여 언어-문학영재들이 기초 어휘력을 증진하고, 창의성과 상상력, 그리고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언어에 대한 실전 감각을 익히고 이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하며, 표현력 향상 위주의 실전 적용 훈련을 추진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글쓰기 외에 담화능력 향상과 내면의 균형감을 키움으로써 언어-문학영재들이 취약하기 쉬운 원만한 대인관계 구축과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발상 전환과 상황별 어휘 대응 훈련

언어-문학영재가 시적 언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1단계에서는 풍부한 어휘의 구사능력 확대와 문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자신감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사고의 유연성, 접근 방식의 독창성, 어휘 사용의 차별화 전략 등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루어진 언어-문학영재 연구에 의하면, 영재들은 또래 집단보다 빠르게 탁월한 수준의 원숙한 표현과 형상화를 통해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이 과정에서 남다른 독창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¹²⁾

12) 영재아들은 평균 이들보다 2개월 빠른 약 10개월 경우 첫 단어를 말하고, 이후 언어습득단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된다. 18개월경에 일반아들은 30~50개의 단어를 말하고, 2세가

통상적으로 시적 언어능력이 뛰어난 언어-문학영재들은 일반 학습자보다 직관력과 감수성이 현저하게 발달하여 있다. 그들은 주위의 사소한 변화까지 미세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뛰어난 감각 활용능력을 동원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¹³⁾ 그들은 주변의 변화와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촉수가 일반인보다 더 발달하여 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한다. 일반인들이 대상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과 언어영재들이 대상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언어-문학영재들은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접했을 때,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여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이끌어내는 데 익숙하다. 그들은 기발한 착안이나 도저히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특이한 방법을 즐겨 구사하여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낸다.

실제로 언어-문학영재들은 자신들의 느낌과 생각을 외부로 표현하고 발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주도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이와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문학영재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표현의 정확성보다는 발상의 전환과 독창성, 그리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 구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¹⁴⁾ 이러한 점에서 언어-문학영재들의 자유분방한 사고와 실험적인 시도들은 그동안 시문학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낯설게 하기 전략, 상상력의 이

지나야 문장을 사용하는 데 반해, 영재아들은 빠른 경우 12개월에서부터 단어를 문장으로 연결하여 말을 한다. 18개월경에 한 문장이나 구절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수도 일반아들은 평균 1.2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 영재들은 3.7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4세 반이 되면 차이는 훨씬 두드러져서 일반아들이 4.6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반해 영재들은 9.5개의 단어를 사용한다(한석실, 『발달에 적합한 유아 영재교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집(2005), 미래유아교육학회, 31면).

13) 정서적 민감성과 강렬함은 주변의 자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자극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어, 때로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하기도 한다. 즉, 소리나 움직임, 말, 물리적 현상 등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자극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된다(유형근, 『미성취 영재의 상담요구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2집(2009), 한국초등교육학회, 121면 재인용).

14) 글쓰기 능력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아주 희귀한 어휘를 적절하게 구사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현상이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표현하기, 있는 그대로 쓰기 보다는 비유 또는 은유적으로 나타내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글쓰기 능력은 훌륭한 상상력과 풍부한 아이디어, 그러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언어 영역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강승희, 김정섭, 『초등학교 언어 영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언어적 창의성 발달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Vol.16 No.1(2003), 408~409면).

미지화, 풍부한 감수성 발현, 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형상화 전략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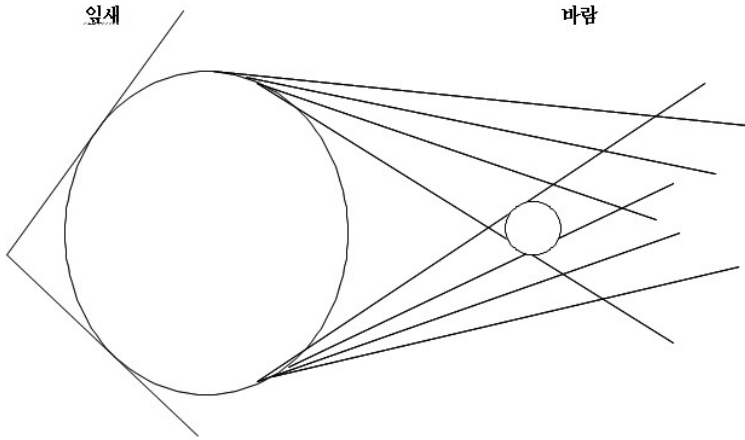
문학에서 운문은 산문과 달리 개별 어휘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작용하는 장르이다. 언어의 경제성과 생략의 미학을 중시하는 운문의 특성상 작품 내에서 언어 사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어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작품 전체의 분위기 형성과 정서 환기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에 이는 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서시」 전문

위의 시 구절에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는 다양하다. 하지만 무수한 어휘 가운데 이 시 구절을 비범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시어는 극히 제한적이다. 시인은 무수한 어휘 가운데서 ‘잎새’와 ‘바람’을 선별하여 채택하고 있다. 시인은 이 시어를 통하여 현실 상황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또 다른 선택을 결정함으로써 자신에게 닥쳐올 생이 고뇌를 피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처럼 특별한 시어 때문에 시인의 고뇌와 그 이면에 숨겨진 번민의 깊이에 공감하면서 이 시가 만들어내는 자장을 수용하게 된다.



바람과 유사한 의미 시어군
 (구름, 햇살, 소나기, 빗발, 천둥, 눈발, 눈개 등)
 <어휘군의 자장 형성>

위의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바람’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다른 시어를 채택할 수도 있지만 시인은 특별히 ‘바람’을 선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택은 시가 어휘의 단순한 결합이나 우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탁월함은 이 시의 비범함을 완성시키는데 일조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시적 효과는 특정 시어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시의 전후를 구성하는 다른 구절인 “앞새에 이는”이나 ‘괴로워’하는 화자의 내면 심리가 상호 간에 긴밀하게 맞물림으로써 시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적 언어능력 활성화 1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이처럼 각별한 의미를 유발하는 어휘를 언어-문학영재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시는 긴장과 함축을 통한 언어사용의 묘미를 체득할 수 있는 문학 장르이다. 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긴장과 함축, 그리고 운율과 이미지는 산문을 포함한 다른 문학 장르와 시를 차별화시키는 항목이다. 그러므로 시 창작과정에는 어휘 선별의 정확성, 적재적소 배치능력, 최소 어휘를 통한 최대 효과 유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함께 언어-문학영재에게 시적 능력은 언어

의 리듬감을 활용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력을 구사하는 데 유용하다. 나아가 시적 언어능력을 보유한 언어-문학영재들은 정제된 표현을 이용하여 의미 전달의 효율성과 심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적 언어능력을 문학 창작 외에 일상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비롯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언어-문학영재의 시적 언어능력 활성화를 위하여 1단계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TV나 인터넷처럼 현실에서 접하기 쉬운 대중매체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언어화 훈련을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게 하며, 작업과정에서 어휘 운용의 즐거움과 창작의 묘미를 체감하도록 할 수 있다.



〈양학선 체조 선수의 ‘아반떼’ TV 광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위의 TV 광고처럼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장면의 특징을 포착하고 이때의 느낌이나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지속하여 반복함으로써 어휘에 대한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브레인스토밍 훈련에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 이 단계에서는 어휘 확장과 함께 방사상으로 표현의 확산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대개 통상적으로 글을 쓰거나 말하는 순간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경험이 작용한다. 따라서 언어-문학영재의 어휘 운용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고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언어-문학영재들에게 일정 시간을 설정하여 이를 명사군, 동사군, 형용사군 등으로 구체화하여 어휘화하는 훈련을 한 후, 시간 단위를 계속하여 짧게 하면서 장면에 대해 반응속도를 높이도록 한다. 만약 TV 광고를 제시한 후, 특정 장면에 대해 5분→3분→1분→30초 단위로 시간을 분절화하여 언어-문학영재들이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무의식적인 검열과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시간 속도를 빨리하여 진행한다면 어휘에 대한 순발력과 유연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어휘들을 바탕으로 시적 긴장을 연습하기 위하여 명사로 종결되는 문장군으로 전환 훈련을 할 수 있다. 특히 TV 광고처럼 발상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수시로 접하게 함으로써 각 상황에 적합한 어휘선별 능력을 강화하고, 서사 관계의 맥락을 삽입시키도록 유도한다면 전체적인 가독성(legibility)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학생들과 퀴즈 대회나 게임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언어 사용의 중압감을 없애고 놀이 차원에서 접근하게 함으로써 어휘 장악력을 키울 수 있다.

장면 적응훈련을 한 이후 다음 단계에서는 문자매체를 활용하여 내용 심화 훈련을 진행하도록 한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널리 알려진 시에서 어휘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훈련이다. 즉, 기존 의미를 유지한 채 유사한 어휘로 대체하여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리는 방식과 어휘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여 의미 전체를 변화시키는 훈련이 가능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어휘 훈련이 가져오는 효과를 언어-문학영재들이 훈련과정에서 인지하도록 하는 점이다. 이 훈련은 단순히 어휘를 대체했을 때와 전체적인 맥락을 변화시켰을 때 발생하는 차이를 언어-문학영재들이 스스로 감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적은 분량의 시에서 출발하여 학습자가 자신감이 붙으면 점차 양을 늘려 시행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문학영재들은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처럼 널리 알려진 동시나 비교적 짧은 분량의 시의 어휘를 대체하였을 때, 어떠한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직접 깨달음으로써 어휘 사용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시에서 시어가 어떤 구동원리로 작동하며, 그 때문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파악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주의할 사항은 언어-문학영재들이 어휘의 단순 대응이나 기교 중심의 훈련이 아니라 어휘 자체의 특질과 그 의미를 충분히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자연과의 교감이나 사색 등의 방식을 통해 사전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과 시어 감각 익히기, 신어 개발과 같은 꾸준히 자기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동영상과 문자를 활용한 1단계 작업은 언어-문학영재들의 기존 언어

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기 위한 방식이며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순간 장면에 대한 언어 대응능력을 높이고, 대상 접근의 다양화, 의식 전환 시도 등의 다각적인 모색을 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표현력 확장과 내적 의미 심화

언어-문학영재의 시적 언어능력 활성화 1단계가 사고의 유연성에 기초하여 어휘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확대하는 훈련이라면 다음 단계에서는 표현력 향상과 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전 적용 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단계에서는 글쓰기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언어-문학영재들의 자기 만족도와 자긍심을 키우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전 작업에 해당한다.

언어-문학영재가 아무리 뛰어난 어휘능력과 독창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화하여 형상화하지 못한다면 그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언어-문학영재들은 일반 학습자의 성향과 달리 자신의 관심영역에 대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¹⁵⁾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사고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제약이나 정해진 방식을 거부하는 등 일탈행위 때문에 괴팍한 인물로 평가받거나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특성은 언어-문학영재들이 외부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느낌에 전적으로 몰입할 수 있으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언어-문학영재들은 언어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표현의 완벽성을 추구한다.¹⁶⁾ 그러므

15) Betts와 Neihart(1988)는 영재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과 자질을 '자기조절학습전략'으로 꼽고 있으며, 6가지 영재유형에서 자기주도학습자(autonomous learner) 유형을 가장 바람직한 영재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자기조절학습이란 학습 목표의 설정, 학습속도 조절, 학습 환경 선택, 학습결과 평가 등 학습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학습자 스스로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성연 외, 『영재학생의 자기조절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및 교사요인 탐색』, 『청소년학 연구』 제18권 제12호(2011), 한국청소년학회, 300면 재인용).

로 이를 창작 활동으로 연계한다면 완성도 높은 글쓰기와 자기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언어-문학영재들의 몰입을 극대화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치열한 작품세계를 확보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언어-문학영재들이 글쓰기나 창작과정에서 발휘되는 고도의 몰입도와 집중력은 치열함과 맞물림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형상화와 작품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다. 반면에 특정 분야에 대한 언어-문학영재들의 지나친 몰입은 쓸림현상과 시야 한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와 균형감각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의 지나친 경도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방향 전환하여 글쓰기에 적용하기 위한 장치로 창의성과 시적 상상력을 들 수 있다.

창의성은 시에서 추구하는 메타포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시에서 메타포는 사물이나 상황의 순간을 포착하여 다른 대상과 연계시켜 상상력을 확장시킴으로써 우리가 진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창의성은 사물의 속성을 간과할 수 있는 동물적인 감각, 장기간 노력을 통해 축적된 언어실력, 개인적인 영감 등에 기초한다. 창의성이 중요한 이유는 시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효과와 함께 시인의 예리한 직관력과 내면세계를 독자들이 교감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그 꽃」 전문

이 시는 비교적 단시에 해당하지만, 시가 담고 있는 의미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시인은 산을 오르내리던 많은 이들이 보았을 것이고, 또 지나쳤을 수도

16) 영재는 높은 수준의 성취를 기대하는 완벽주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 영재의 완벽주의는 자신이 질적으로 우수해야 한다는 인식과 칭찬이 주는 정적 강화 및 사회 학습의 결과에서 비롯된다. 발달이 빠른 영재의 아동 초기의 성공경험은 영재에게 칭찬과 흥분을 주고, 이는 완벽주의를 강화시켜 준다(유형근, 앞의 논문 118면).

있는 평범한 ‘그 꽃’에 주목한다. 산을 오가던 많은 이들이 ‘그 꽃’을 무심히 지나치며 보았겠지만 이를 새로운 세계를 여는 통로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과정에는 꽃에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 즉 창의성과 상상력이 작동한다. 그 결과 독자들에게 「그 꽃」의 ‘꽃’은 평범한 꽃의 의미로만 읽히지 않는다.¹⁷⁾ 이 시가 무수히 많은 의미 변주를 일으키면서 다른 의미로의 독해가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주변에 대한 열린 시각과 그 의미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이러한 작업은 언어-문학영재들이 쉽게 현혹 가능한 언어유희의 유희으로부터 그들의 잠재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지지선이 될 수 있다.

창의성이 발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이라면 상상력은 현재와 과거, 그리고 공간을 넘나들면서 또 다른 세계를 창출해내는 동력이다. 또한, 상상력은 고단한 삶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기도 하고, 미래 지향과 맞물림으로써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지금도 무릎이 시큰거리느냐

천삼백 년이면 불심 강한 이도 한 수 잡고 가는 길
 어찌면 너도 천축(天竺)서 관절 꺾고
 절 마당 목욕탕인양 푸욱 담그고 싶었겠지
 북녘땅 접어들 때엔 미처 예측 못했겠지
 살아 있는 부처 만나기 위해 떠났던 기약 없는 길이었기에
 다들 흑백사진 속 표정 없는 얼굴과
 씨금씨금 해진 활자 이야기로만 기억하지만
 너만은 또렷이 알고 있지

총령(蔥嶺) 거쳐 오대산 한달음에 달려오던 발길이
 꼬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지
 중국 공안에 쫓기던 어린 눈동자

17) 이미 김춘수는 「꽃」에서 꽃에 대한 발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시도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의미 부여의 가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서정주의 ‘나를 키운건 팔팔이 바람이다’(「자화상」)나 김춘수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꽃」) 등에서 나타나듯이, 시 구절 들은 다른 작품의 창작 모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고향이 함흥이랬지
단속 피해 신발만 챙겨든 채
훈춘 화룡 거치면서 몸은 숨죽이는 일에
더 빨리 익숙해졌다지
장춘행 기차에서
매운 기침으로 쏟아지며 안겼을 때
네 몸은 후끈 달아올랐는지
부처님 진신사리 접했을 때보다

예정에 없던 일이라 변변히 옷가지도 못 챙기고
도문 국경* 저편에서 물끄러미
강 이쪽으로 씩씩히 시선만 던지던 아우여!
돌아오지 않는 다리 안으로
성큼, 건너 설 때는 언제인가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부처 때문인가, 꽃제비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무심한 우리 때문인가
오늘도 목숨을 승인 받기 위해
연변, 길림, 용정으로 떠돌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혜초, 내 어린 아우여!

—장창영, 『왕오천축국전』 전문

* 북한과 중국 국경 사이에 있는 다리로서 이 다리를 통해 경제와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 시는 1,300여 년의 시차를 넘나들면서 신라 시대 혜초가 떠났던 구도의 길과 북한 꽃제비의 비참한 현실을 교차시키고 있다. 어느 날, 시인은 우연히 접한 꽃제비와 관련한 신문기사에서 착안하여 떠나면 이국으로 험난한 구도의 길을 나섰던 혜초를 떠올린다. 과거 혜초가 구도를 위해 걸었던 길은 꽃제비들이 이국땅인 연변, 길림, 용정을 떠돌면서도 끝끝내 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써 시인은 혜초가 떠났던 고행과 구도의 길을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각인시킨다.

이처럼 시에서 상상력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또 다른 세계로 확산시키면서 우리 삶의 시야를 확장하는 구실을 한다.

언어-문학영재들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한 상상력 구체화 작업을 들 수 있다.



〈천 길 낭떠러지 절벽서 자전거 타고 질주?〉¹⁸⁾

위의 사진을 보고 언어-문학영재들은 브레인스토밍 훈련을 통하여 1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를 적은 이후, 이를 형상화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이는 1단계에서 시도한 사고의 유연성을 확대 적용한 방법으로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의 경계를 스스로 감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1단계에서 이미 시도한 바 있는 언어-문학영재가 떠올린 어휘를 각각의 개념 어휘군으로 군집화하고, 이들 가운데 통상적인 어휘는 배제하고 이질적인 독특한 어휘를 선택하여 문장으로 확대·재편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편의 시를 완성하여 창작하도록 한다.

이 방법을 확대하여 자연과의 교감을 포함한 오감 자극 훈련이나 세련화 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감을 동원한 글쓰기 훈련은 제도권의 학습이나 논리와 이성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글 쓰는 이의 영적인 영역을 키우기 위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처럼 영적 강화 훈련은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에 대한 언어-문학영재들의 원론적인 이해를 돕고 글에 대한 소명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18) <http://nbiz.heraldcorp.com/view.php?ud=20121030000035>

다음으로는 널리 알려진 시를 응용하여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툰툰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한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곽재구, 「사평역에서」 부분

위의 시는 곽재구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진 「사평역에서」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한 줄 건너 생략된 시의 전체 의미를 떠올려가며 빈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이다. 이때 언어-문학영재들은 감각적인 시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하거나 느낀 사실을 개입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작업은 기존 시 창작에서 이루어지던 행간과 연의 의미, 즉 여백의 미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시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빈 구절을 채워가면서 언어-문학영재들은 문장을 강화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언어-문학영재들이 운율, 이미지, 부호 등 다양한 가상 변수를 활용하여 시 창작과 운용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이때 그들이 작업한 내용이 기존 시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언어-문학영재들이 자기들만의 시선으로 작품 전체의 맥을 잡아가면서 시의 전개 방향을 설정하느냐의 여부이다.

또 다른 훈련 방법으로는 동일 제목의 시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써보는 방식이 있다. 언어-문학영재들은 시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방식을 통해 자기만의 표현력을 강화하고 형상화방식을 익힐 수 있다. 언어-문학영재들은 이와 같은 단계를 훈련하면서 작품의 형상화과정을 충분히 인지함으로써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문장 숙련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되면 연작시 형태로 진행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시 전체를 한 줄로 압축하는 훈련을 들 수 있다. 이 작업은 언어-문학영재들의 몰입과 집중력을 글쓰기 과정에서 치열함으로 전환하여 정제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를 특정 이미지와 연계하여 표현하도록 한다면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효과까지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이는 전체 시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도의 이해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때 여러 명의 언어-문학영재들이 공동작업이나 경연형태로 진행할 경우,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은 언어유희로 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 전체 작업으로 다양한 독서와 토론 등을 병행하여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시도했던 어휘 패러디를 확장시켜 시 전체 패러디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영재들이 자신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나아가 자신만의 독자적인 창작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언어-문학영재들은 패러디와 창작과정에서 실험정신을 발휘하여 자신의 상상력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는 시도를 할 수 있으며, 표현의 변별점과 장단점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서사성과 논리성을 필요로 하는 글쓰기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표현의 균형 감각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2단계에서 언어-문학영재들이 실제 글을 쓰면서 시도하는 다양한 실험과 도전정신은 자신의 역량 발휘만이 아니라 우리 문학과 문화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작업은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해서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함으로써 자신만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글쓰기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창의성 발현과 상상력의 구체화와 같은 작품 형상화 과정과 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은 언어-문학영재들에게 부여된 특권이자 의무이다. 언어-문학영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작품세계를 만들고, 이를 기점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 다른 가능성을 지닌 이들에게 적극적인 동기 부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들이 창출한 언어와 작품 세계가 우리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상향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4. 정서 안정과 거시적인 대응력 확보

언어-문학영재의 시적 언어능력의 활성화를 위해 1단계와 2단계에서 어휘력 강화와 표현력 확장에 집중했다면 3단계에서는 글쓰기의 기술적인 측면 외에 내면심리 안정과 가치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결국, 3단계에서는 언어-문학영재들의 글쓰기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하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문단의 거두였던 이광수와 최남선, 그리고 서정주, 채만식을 비롯한 수많은 작가는 뛰어난 문장력을 토대로 친일의 길에 앞장섬으로써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이와 같은 사례는 탁월한 문장력과 뛰어난 능력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자신과 사회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입증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뛰어난 언어능력을 갖춘 이라도 이를 적절히 조율하지 못한다면 비극적인 형태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언어-문학영재에게는 문장력 향상 훈련 외에 내면의식을 강화하는 훈련과 건전한 세계관 형성이 필요하다.

그날 아버지는 일곱시 기차를 타고 금촌으로 떠났고
여동생은 아홉시에 학교로 갔다 그날 어머니의 낡은
다리는 툭툭 부어올랐고 나는 신문사로 가서 하루 종일
노닥거렸다. 前方은 무사했고 세상은 완벽했다 없는 것이
없었다 그날 驛前에는 대낮부터 창녀들이 서성거렸고
몇 년 후에 창녀가 될 애들은 집일을 도우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았다 그날 아버지는 未收金 회수 관계로
사장과 다투었고 여동생은 愛人과 함께 음악회에 갔다
그날 퇴근길에 나는 부츠 신은 멋진 여자를 보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태연한 나무들 위로 날아 오르는 것은 다 새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잔디밭 잡초 뽑는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숨어내는 것을, 집 허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새占 치는 노인과 便桶의

다정함을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市内 술집과 여관은 여전히 붐볐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 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성복, 「그날」 전문

위의 시에서 시인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가족의 일상을 시 전면에서 제시하여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환기하게 하고 있다. “세상은 완벽”하고 “없는 것이 없었”다는 표현 이면에는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와 같이 왜곡된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자리한다. 시인은 몸도 마음도 안 아픈, 병들지 않고 폭력도 없는 세계를 꿈꾸지만, 그가 바라본 현실은 치욕 그 자체였다.¹⁹⁾

이 시의 구절들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냉소적인 시선과 현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균형감과 비판정신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시적 언어능력은 뛰어난 언어 기교가 아니라 독자들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하는 위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지속적인 관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보편 개념이나 논리를 벗어난 이질적인 표현들은 독자들에게 당혹감과 함께 상당한 충격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충격은 독자들에게 우리 삶을 환기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며, 삶에 대한 관조를 불리일으키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이질적인 시어 사용이나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표현이 언어-문학영재들의 창작 과정에서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언어-문학영재들은 사유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외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섭과 괴리 현상을 여과 없이 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²⁰⁾ 그런 점에서 위의 시는 언어-문학

19) 김정신, 「이성복 시에 나타난 소외 극복 과정 고찰」, 『초등교육연구』 22집(2009), 한국초등교육학회, 183면.

영재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파편적인 상흔과 내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시를 통한 내면화 과정은 영재들의 자아 정체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한편 열악한 환경이나 콤플렉스까지도 긍정적인 삶의 동력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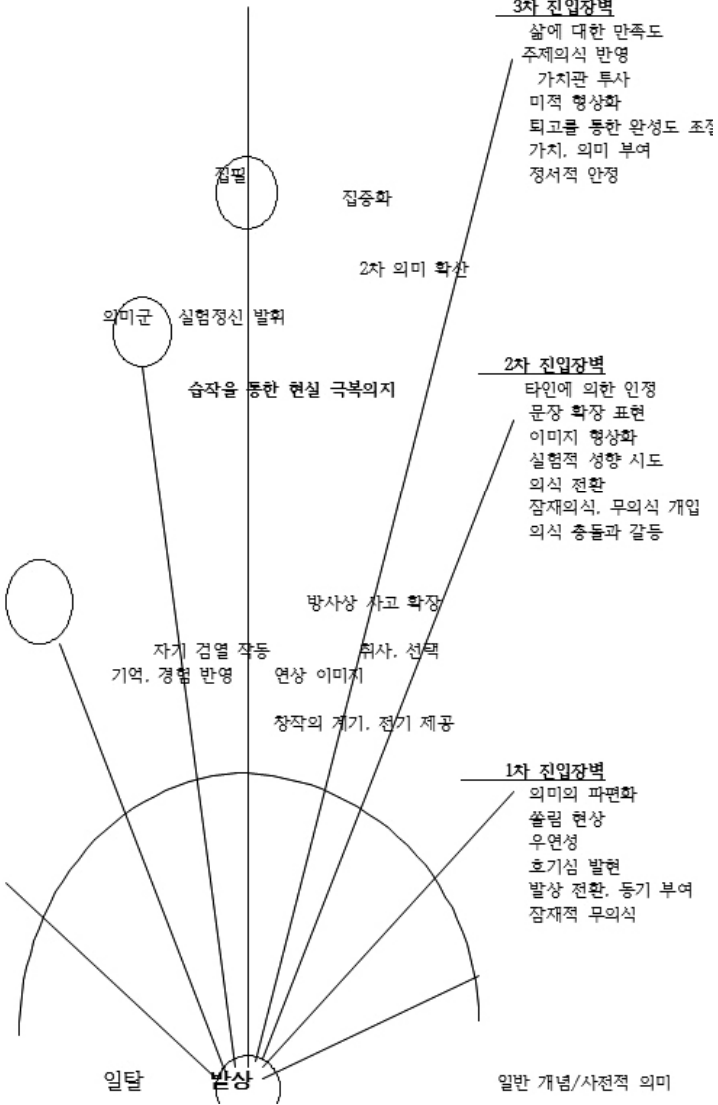
언어-문학영재들이 보유한 열정과 도전정신은 기존의 체제에 순응하거나 안주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며 자신들의 꿈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실에 대해 저항과 도전을 거듭한다. 이와 같은 도전의식과 실험정신은 새로운 장르 창출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언어-문학영재들의 이와 같은 속성은 기존의 문학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장르의 모색이나 신조어 생산, 실험적인 문장 구사 등에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이상(李箱)처럼 암호와 같은 문장이나 난해한 부호를 사용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사고를 전개하기도 한다.²¹⁾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과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좌절하고 상실하여 글쓰기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창작과정과 희열에서 기인한 중독성은 언어-문학영재들의 영재성을 고갈시키거나 영재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20) 영재들은 인지적, 정서적으로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적용적으로 발휘되면 뛰어난 적응력과 학업성취를 보이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한 부적응과 미성취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영재들은 가족, 친구, 교사 등과의 상호작용에서 그들의 비범한 능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사회 부적응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유형근, 앞의 논문, 120면 참조).

21) 이상이 자신의 시 「오감도(烏瞰圖)」를 연재할 때, 일반인들에게 받았던 오해와 질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이상은 독자들의 항의 때문에 처음 의도했던 연재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후 이에 대한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시대를 앞서 간 천재들은 그들이 살았던 당대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후대에 인정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가족, 동료, 멘토 관계 형성
 다중 안정망 확보
 시대 선드성
 보편적 공감대 형성

전체 문장
 의미 확장단계, 의미 심화



〈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계별 의식 발산〉

위의 도표는 언어-문학영재들이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의식 발산을 도표화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적 언어능력을 활성화한다면 1단계에서 검열과 자기 방어 기제를 극복하고, 2단계에서 문장 표현력과 존재감을 극대화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언어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표현력을 확장하는 시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전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치관 형성의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언어-문학영재들이 자기 방식의 글을 쓰면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과 의견 충돌이나 정체성 혼란과 같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언어-문학영재들이 일반인과 달리 자아 성취감에 대한 열망과 자유의지가 더욱 강렬하므로 발생한다. 언어-문학영재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성취 욕구를 고무시키며, 새로운 세계 창출을 시도하면서 자아 성취감을 누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문학영재들은 창작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자신만의 표현방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문체를 만들기도 한다.

언어-문학영재들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자기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어를 기반으로 창작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 치열한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에 만족한다. 그 산출물들은 일반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거나 경악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일반인들이 언어-문학영재들의 독창적인 표현에 감동하거나 충격을 받는 이유는 그 발상이나 접근방식이 기존 사고의 전형성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언어-문학영재들이 기존의 사고방식이 갖는 정형의 틀을 파괴하고 자신들만의 시각을 갖고 대상을 인식하고 접근하려는 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글을 쓰는 과정은 즐거움만큼이나 주체의 형상화와 작가의식 표출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정도의 치열성과 엄격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다.²²⁾

이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좌절감과 소외, 감정의 기복, 대인관계와 사회성

22) 문학의 경우, 작가의 치열성은 창작 작품의 완성도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작품의 우수성과 완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글 쓰는 이의 치열한 노력과 집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할 등은 언어-문학영재들이 자신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²³⁾ 언어-문학영재들이 자립성과 독자적인 세계 구축에 몰입하면 할수록 다른 이와는 갈등이나 오해의 소지가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직면할 수 없는 시련이나 갈등 발생 시에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다. 즉, 글쓰기에 대한 공포와 부담, 그리고 압박감을 극복할 수 있는가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앞으로 언어-문학영재들의 생존전략으로 대두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언어-문학영재의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완충장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언어-문학영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어능력의 발휘라는 기술적인 측면 이전에 인간으로서 자기 만족감과 자존감의 확보이다. 외부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칭찬에 익숙한 언어-문학영재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 그 상실감과 좌절감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우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첫째, 언어-문학영재들이 마음의 지력, 즉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마음치료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처럼 강한 정신력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 작업은 강한 자존심을 지닌 영재들이 외부요인에 의해 상처를 받거나 이미지 훼손을 당했을 때 충격을 완화하고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보완 구실을 해줄 수 있는 우호적인 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언어-문학영재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로는 가족과 친구,

23) 영재는 집중성, 민감성, 감수성, 높은 열정, 좌절에 대한 참을성 부족, 내외적 기대 충족에 대한 압력, 완벽주의 등과 같은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아동에 비해 불안, 우울 경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해 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나 학교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사회적 고립, 우울, 자살 등과 같은 병리현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될 수 있다(성희정·한기순, 『영재의 고민과 상담요구에 대한 개념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9호 (2011), 한국청소년학회, 311면 재인용).

그리고 멘토가 있다.²⁴⁾ 특히 멘토는 언어-문학영재들이 성공과 실패의 순간에 쉽게 좌절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없애고, 그들이 미래와 목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창작이라는 과정 자체가 극단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문학영재들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영혼과의 교감을 위해 동료나 멘토와의 긍정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완충장치라 할 수 있는 다중 안전망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언어-문학영재들이 글쓰기 외에 다른 취미를 갖거나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익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스스로 충격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다중 안전망을 갖춘다면 문제 발생 시 다양한 해결책 모색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단계별 장치들은 언어-문학영재들이 현실에서 겪는 상황들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삶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적 언어능력을 향상함으로써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능력을 증진한다면 대인관계 향상과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언어-문학영재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나 자신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날 경우, 충분한 상호 교류를 통하여 독자성 확보와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시적 언어능력 활성화의 기대 지평

이 연구의 목적은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갖춘 언어-문학영재들의 시적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언어영재가 지녀야 할 잠재능력 계발과 능력 발현을 구체화

24) 실제 영재들은 학급 생활에서 친구들과의 많은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현상은 영재들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동시성의 문제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또래의 정서적 수준과의 차이가 그 문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연령이 아니라 생활연령을 바탕으로 학급이 편성된다. 그러므로 '친구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의 항목에서와같이 영재들은 학급에서 자신의 지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친구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소외감, 좌절감, 이질감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영재들은 자신과 유사한 능력, 흥미, 문제, 요구 등을 갖고 있는 '진짜 또래'들과의 교류가 힘들기 때문에 사회성이 미숙할 수도 있다(성희경 외, 같은 논문, 328면)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언어-문학영재의 시적 능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는 그동안 결과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언어-문학영재에 대한 관점과 대응방식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기초 어휘 및 어휘 적응훈련, 2단계에서는 표현력 확대를 위한 실전 강화 훈련, 마지막으로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 가족, 동료 및 멘토와의 관계 활성화를 검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주류를 이루어왔던 도제 방식의 습작과정이나 학교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습득 위주의 언어영재교육과 차별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이와 같은 훈련이 오히려 언어-문학영재들이 태생적으로 보유한 뛰어난 감수성이나 언어 감각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시적 언어능력 활성화는 언어-문학영재들이 개인적인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이면서도 기이한 행동이나 표현 때문에 사회생활의 부적응자로 낙인찍히거나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부정적인 측면 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현행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면, 입시를 염두에 두고 암기 위주와 정량 평가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다. 특히 이후 연구가 언어-문학영재들의 잠재역량 발휘와 표현 활성화를 기반으로 삶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일반 학습자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언어-문학영재들이 가진 잠재능력은 우리 세계와 이후 직면할 세계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 창출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언어-문학영재 발굴을 통한 양질의 문학작품 창작은 문화 수준 향상과 확산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다. 뛰어난 문학작품은 이를 읽는 국민들에게 문학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인문학적 소양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언어-문학영재의 발굴과 육성은 개인의 성취 이외에도 문화콘텐츠와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희, 김정섭(2003), 「초등학교 언어 영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언어적 창의성 발달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Vol.16 No.1. 한국초등교육학회.
- 강승희, 최인자(2004), 「언어적 창의성 향상을 위한 창작 심화 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열린교육연구』, Vol.12 No.2. 한국열린교육학회.
- 권순희(2006), 「국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한국초등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_____ (2009), 「언어-문학영재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외국사례 비교」, 『국어교육』 128호, 한국어교육학회.
- 김성연 외(2011), 「영재학생의 자기조절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및 교사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2호, 한국청소년학회.
- 김유선(2010), 「논술영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5호, 한국청소년학회.
- 김정신(2009), 「이성복 시에 나타난 소외 극복 과정 고찰」, 『초등교육연구』 22집, 한국초등교육학회.
- 박경숙, 오영주(1997), 「언어 영재 판별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 박수자, 최인자, 김정섭, 강승희, 공명철, 한상한(2005), 「언어 영재를 위한 창의적 작문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수-학습 개선 및 자료 개발, Vol.2 No.1.
- 서상문(2011), 「영재교육을 위한 LACAN 정신분석학적 토대 탐색」, 『교육철학』 제44집, 한국교육철학회.
- 서혁(2010), 「언어-문학영재성과 국어 능력의 관계」,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 탐구』, 한우리 북스.
- 성희경·한기순(2011), 「영재의 고민과 상담요구에 대한 개념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9호, 한국청소년학회.

- 우한용 외(2010),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 탐구』, 한우리 북스.
- 유형근(2009), 『미성취 영재의 상담요구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초등교육 연구』 22집, 한국초등교육학회.
- 이순영(2001), 『언어 영재의 개념과 언어 영재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Vol.6 No. 한국독서학회.
- 이의란(2003), 『언어 영재 판별 도구 개발 연구』, 서울교대 대학원 석사논문.
- 임경순(2010), 『내러티브 영재 개념과 판별』,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 탐구』, 한우리.
- 장창영(2009), 『언어-문학영재와 시적 언어능력』, 『한국언어문학』 6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9.
- _____ (2010), 『영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교수-학습 전략』, 『국어교육연구』 25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10.
- 정정순, 『언어 영재 교육에서의 문학의 활용 방식 연구』, 『어문학교육』 제34집, 한국어문교육학회, 2007.
- 정진석(2010), 『극 영재성의 개념과 교육 방향』,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 탐구』, 한우리.
- 진선희(2010), 『언어-문학영재의 교수-학습 원리 탐색』,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 탐구』, 한우리.
- 최인자(2003), 『언어 영재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학연구』, Vol.- No.8. 신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 _____ (2010), 『언어-문학영재 교육 과정의 구성원리』,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 탐구』, 한우리.
- 최지현 외(2006), 『언어 영재성 판별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1)』, 『국어교육』 121호, 한국어교육학회.
- 최지현(2010), 『언어-문학영재성에 대한 정량적 판별 준거』,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 탐구』, 한우리.
- 한석실(2005), 『발달에 적합한 유아 영재교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집, 미래유아교육학회.
- <http://nbiz.heraldcorp.com/view.php?ud=20121030000035>

【국문초록】

이 논문은 언어-문학영재의 시적 언어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언어-문학영재들의 시적 언어능력은 어휘의 선별과 배치, 감수성과 직관력, 상상력과 창의력, 창조성과 실험정신, 형상화와 미적 완성도 등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글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언어-문학영재들이 지니고 있는 시적 언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언어-문학영재들은 시적 언어능력을 작품 창작으로 체화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재확인하고 이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다. 그러므로 때문에 언어-문학영재들이 시적 언어능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체를 점검하고 단계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1단계에서는 사고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정관념 해체, 장면 전환 대응 훈련, 어휘력 강화훈련을 시도하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경험과 상상력을 구체화하는 표현력 강화훈련과 시야 확장 훈련을 진행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아 만족감,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 지속성 강화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언어-문학영재들은 상상력의 무한 확장, 언어 표현력의 확장,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심리 변화, 잠재능력 개발에 따른 자아 성취감 형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시적 언어능력 개발과 관련한 요소들은 언어-문학영재들이 언어를 매개로 하여 자신 및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시적 언어능력 활성화 방안은 언어-문학영재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또 다른 가능성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미래 성장 전략이기도 하다.

주제어 : 언어-문학영재, 시적 언어능력, 활성화, 잠재능력, 창의력, 상상력, 표현력, 내면의식, 가치관, 세계관

【Abstracts】

The poetic linguistic competence revitalization strategy of the language-literary genius

Jang, Changyoung

This paper considers about the poetic linguistic competence application plan of the language-literary genius and this meaning. The poetic linguistic competence of the language-literary geniuses acts in the sorting of the vocabulary and arrangement, susceptibility and intuition ability, imagination and creativity, creativity and experimenting spirit, and patterning and aesthetical percentage of completion compositively.

In this paper, the concrete stratagem developing the poetic linguistic competence which the language-literary geniuses carry in 5 sides tried to be devised. The language-literary geniuses have some unique experiences in the process that accumulate the poetic linguistic competence with the creation of works, and reconfirm and materialize their own capabi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 process of intensifying the ability through the leveling in order to activate the poetic linguistic competence of the language-literary geniuses.

In the first step, the pliability of thought, fixed idea dismantling, and vocabulary intensified training are attempted. In the second step, the power of expression intensified training and view expansion training are progressed to materialize the experience and imagination. In the final step,

the euphoria can be promoted at the writing process by implementing the self satisfaction expansion, 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relation with a mentor, the psychological balance sense is maintained with the power of expression

Through this, the language-literary geniuses can expect the feeling of self accomplishment formation by the unlimited expansion of the imagination, the expansion of the ability of lingual expression, the emotional sense of stability, the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 and the latent faculties development, and etc. The elements related to the poetic linguistic competence enlightenment looked into in this paper have the meaning in the point that they are the devices which the language-literary geniuses can communicate with themselves and world by the medium of the language.

In addition to that the poetic linguistic competence activation plan is not only the obligation given to the language-literary geniuses but also our investment to meet the another world.

Key words : the language-literary genius, poetic linguistic competence, activation, latent faculties, creativity, imagination, power of expression, Inward consciousness, values, world view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7월 2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3년 8월 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